

## ESG 경영의 공동체성에 대한 성경적 논의

이완형 서울사이버대 교수

### 요약본

ESG경영이란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로서 기업의 사회, 환경적, 지배구조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그리고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을 기업경영의 핵심지표로 삼는다. 이는 기업의 목적이 단지 이윤추구에만 있지 않고 지배구조와 환경 그리고 사회문제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새로운 가치를 말한다.

이는 경영의 목적과 가치가 자기기업만의 관점으로부터 지구와 사회와 공동체의 공공성 관점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성이라는 명제이래 기업은 환경과 사회와 공존하면 발전해야 하는 시대적 가치를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ESG의 경영을 말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공존과 기업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보다는 E.S.G.에 대한 개별적 지표와 개념들, 그리고 성과측면에서의 평가를 위한 지표중심의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SG경영의 공동체성에 대해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공동체성의 의미를 연구한다. 구약성경은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다. 족장이야기를 시작으로 공동체는 구약사회학의 주요주제이다. 출애굽 경험을 공유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공동체이다. 여기로부터 공동체에 필요한 관습과 윤리와 율법이 존재한다.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의 관습의 한계에 머물러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동체성의 결정적 예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되는 십계명이다. 십계명으로 특징지워지는 공동체적 윤리는 생명존중사함(6계명), 성적윤리와 결혼과 가정(7계명), 타인의 재산권보호(8계명), 정직과 진실(9계명), 청빈과 절제(10계명)이다.

신약성경에의 공동체성은 예수의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선물로 공급해주시는 구원의 은혜 위에서 있는 공동체이다. 예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다른 유대 공동체와 달랐다. 유대 공동체들은 율법적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사는 데 집중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폐쇄적이었고 배타적이었다. 반면, 예수의 공동체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 이전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는

자연히 개방적이었고 관용적이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배경을 중심으로 오늘날 ESG 경영의 공동체성, 공동체 정신을 논의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성경의 내용과 신학적 배경을 토대로 ESG 경영의 특성을 공동체성에 초점을 두고 ESG 공동체성을 성경의 공동체성과 연계하여 논문을 구성한다.